십자가 생활화와 예수님 다시 못 박기

(히6:1~8)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생활화와 예수님 다시 못 박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와 예수님 다시 못 박기'

여러분, 철학자 강 신주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생각해 봤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죽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1인칭 죽음이 있고, 2인칭 죽음이 있고, 3인칭 죽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에 역점을 두고,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의 죽음으로 나누었는데, 그 초점을 맞춘 인간의 마음에 준해서 설명을 해 보자면, 1인칭 죽음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죽으면 어차피 고통이 없는 거니까, 죽은 후에는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인칭 죽음은, 죽기 전이 두렵지 그 죽음 자체, 죽음 상태에 들어가서는 뭐 별로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3인칭 죽음이 뭐냐,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들의 죽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외국,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또 산이 붕괴가 돼가지고 2000명이 매몰이 됐는데, 국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상황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2000명이 넘게 죽은 겁니다, 다 파묻혀 가지고.
근데 그들의 죽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숫자만 기억이 납니다, 슬퍼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보통 보편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죽음입니다.

근데 2인칭의 죽음이 있어요, '너의 죽음'입니다.
이게 정말 죽여주는 죽음입니다, 사람 마음을 죽여주는 죽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너,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 '너'가 죽을 때에, 아! 이 '너'의 죽음 2인칭의 죽음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근데 이 철학자 강 신주 씨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이 '너'의 죽음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기 초가 되면 '그들'이 학기가 진행 되면서 '너'가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요, 살아남은 학생들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도 아픈 것은, 그들의 죽음이 될 수가 없지요.
어차피 사고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계속 겪어옵니다.
그 때마다 그들의 죽음이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정말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한 학년의 전원에 가까울 만큼 많은 숫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당하니까, 남의 일 같지를 않아서 '너의 죽음'으로 돼가지고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죽음이 있어요, 묘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강 신주 선생님의 죽음의 분류에 어떻게 끼여 넣어야 될지 잘 모르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이기도 해요.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입니다, 마음이 아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동시에 '너의 죽음'이시기도 합니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제자들, 제자들이 다 도망은 갔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이기도 하고 너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너의 죽음이고, 관계가 없으면 그들의 죽음이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이요, 너의 죽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이상하게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바라봤고, 너의 죽음으로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신 뒤 오순절을 겪으면서, 성령이 임하셔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에서 신앙사건으로 변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뭐냐?
예수님 죽음에 대한 입장 정리입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거에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참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으로 돼버리면 안 됩니다.
너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너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되어야 되면서,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죽음이 되면서 동시에, 이상하게 도저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과거 속의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사건이 되면서, 영원한 현재로 남아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사도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사건은, 직접 역사적으로 경험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 자신에게 현재의 사건이었고, 그 뒤에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그 뒤에 어거스틴에게도 그랬고, 루터와 캘빈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건이고 나의 죽음이고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가정에서 뭐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부부가 생활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으로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멈추는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신앙은 살아 있는 신앙이 되어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는 적이 남고, 세례 받았다는 역사적인 세례증서가 남을 뿐이지, 살아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부 십자가에 대한 입장표명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서 너의 죽음으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나의 죽음인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억됨을 통하여 현재의 사건으로 살아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이 되어 버려서 너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아니고, 잊혀 져 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 이 경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경우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근데 그 오류가 극복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재의 사건이 돼야 돼요.
한 번 죽으신 그 사건이 신앙사건이 되면서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써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그 나의 죽음은 지속적으로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이 돼 버리면서(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던 나에게 있었던 그 이유가 극복되지 않고, 그 오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되었던, 그 나의 오류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떨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안 될 때, 너의 죽음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죽음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이 죽음이 되어버릴 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그 나의 잘못 된 이유로 내가 돌아가 버리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 지경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현재의 사건으로써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길을 걷고, 한 사람은 십자가를 전혀 그들의 죽음으로써 마음에서 밀쳐져 나감을 통하여, 다시금 오류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던 그 이유를 살려내는 겁니다.
활발하게 살려냄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두 종류의 십자가의 길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리스도 도의 시작인데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르침인데,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르침 중에서 버려도 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버린다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합니까?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뭐 이방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죽음의 행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죽음의 행실을 회개를 했습니다.
죽음의 행실이 뭡니까?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과 행동의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육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 대상들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판단하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음의 행실입니다,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게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둬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둬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행실이에요.
전부 육체에서부터 내 마음이 동기를 부여받는 겁니다.
육체가 만나는 상황, 육체가 만나는 사람, 육체가 느끼는 느낌, 이것들이 마음에 전달되면서, 마음에서 욕구가 불타고, 마음에서 판단이 생기고, 마음에서 결심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면서 행동하고 말했다, 이게 죽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초보단계에서 듣고 배우고 압니다.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유에 따른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버려요.
그럼 버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건물의 기초와 같은 거지요.
기초를 잘 닦았어요, 근데 기초가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또 기초를 다시 닦아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기초가 또 잘못 됐어요, 그래서 기초를 다 허물고 또 다시 닦아요.
언제까지 기초만 닦고 있겠냐 이거에요.
제대로 기초를 쌓아가지고 빨리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버린다는 얘기는 '기초를 쌓는 일을 떠나서 제발 좀 그 다음 레벨로 진도가 좀 나가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한지가 언젠데,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남한테 가르쳐도 될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신앙의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니 답답하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언제까지 기초를 문제 삼겠냐, 왜 기초를 문제 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3절에 온전한 데로 나가자하는 얘기가 나오고, 6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다 그러고, 그 상반절에는 타락한 자들이라 그래요,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단계를 들었어요,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초보단계,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가 있어요.
세례는 개종할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수는, 성령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게 관례였으니까 (초대교회 때), 역시 초보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위에 쌓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맨날 초보단계를 일깨워 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만나는 대상들에 대한 느낌이 이유가 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던 것, 예를 들어 자식을 딱 보면 공부를 안 한다 '야~ 이놈아 공부 안 해서 네가 사람노릇 하겠냐?' 이렇게 하는 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시작해 놓고서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별별 것 다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애가 TV 보고 있으면 '이놈아 내일 학교 갈 놈이 숙제는 다 했어~' 또 탁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는 대로 또 반응하고 행동하고 나오는 겁니다.
아내를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서 하루만 돈이 좀 안 벌리면, 아이고 망했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에요.
분명히 회개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아야지 했는데, 또 세례를 받으면서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죽은 거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다, 소원도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당인 거라.
믿는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결국은.

십자가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분을 다시 못 박고 있는 거다.
그럼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다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3인칭 죽음으로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돈 문제에 바빠 가지고, 집안에서 무슨 문제 일어나면 그거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그들의 죽음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가 느끼고 육체가 접하고 육체가 받아들이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한~없이 한없이 끌려가면서, 그렇게 육체를 따라 종속돼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한들, 나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의 죽음이 돼가지고, 지금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부모님이 죽은 거 같은 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돼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몸이 좀 아프다고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고, 관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죽음이 지금 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육체가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죽지요, 나의 죽음이 되니까.
그렇게 나의 죽음이 되어서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일체 죽어버릴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삶이 주어지고, 완전한 데로 나간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 기초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르익어 가고, 어저께 말한 대로 하나님을 벌어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부자가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생활화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오류, 나의 과오, 나의 추악한 죄, 그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상태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흔들리고 있는 모~든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유대인들로 너무 잘 알지 않냐.
그래서 앞에 대제사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연관 되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잘 알고 있는 게 뭐에요?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끌고 가면, 그 번제에 내가 안수 해 가지고 내 죄가 다~ 그 번제물, 송아지에 다 옮겨지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거를 각을 떠서, 내가 각을 뜨고 죽이고 각을 뜨고 하면 그걸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송아지가 타는 걸 보면서, 내 죄를 스펀지가 물 흡수 하듯이 흡수한 송아지가 타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일체시키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걸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누구보다도 유리한 사람들인데.
왜냐? 이방인들의 제물은 신들께, 우상들께 드리는 와이로에요, 와이로.
뇌물이라는 말입니다, 뇌물.
잘 보여 가지고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기 위한 deal이에요, deal.
그러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죄를 지은 내가 죽고, 용서 받아서 다시 새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유하심의 제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너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을 그들의 죽음으

로 밀지 않고, 너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일상화했다면,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뜻과 계획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혔을 텐데'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가지고, 땅이 곡식을 많이많이 열매 맺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 이건 웬 엉겅퀴만 나오느냐, 엉겅퀴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딴 데로 갔기 때문이다.

왜 딴 길로 갑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는 찬송이 있는데, 왜 딴 길로 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은 육체에 종속되어서, 육체가 느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보고 있는 것, 육체가 듣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행, 아무상관 없는 엉겅퀴를 열매 맺는 겁니다, 땅에서.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입장 정리에요.

지금 오늘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이 돼버리면, 신앙이 멈춰진 상태이고, 엉겅퀴가 열매 맺혀질 것입니다.

내 말도 엉겅퀴이고, 손에서 발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가 다 엉겅퀴일 거예요.

잊지 말아야지요.

예를 들어, 지금 내 자식이 죽기 일보직전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나갔어요, 회사에 나가서도 자식이 죽을 거 같다는 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죽을 거 같다, 남편이 죽을 거 같다, 잊게 됩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잊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나라라 그래봐야 천지 가운데 티끌 밖에 안 돼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하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직장에 나가면 잊혀 져야 될 사건입니까? 그게 왜 집안에 돈 문제만 생기면 잊혀 져야 될 사건이냐고요, 왜?

그게 왜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안되면 잊혀 져야 됩니까? 남편 사업 안 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비교해 보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전~~혀 심각하지 않은 그들의 죽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독생자를 그야말로 그렇게 저주 속에 처박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구덩이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저주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께서,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의 죽음을 그들의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겅퀴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엉겅퀴 밖에, 내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게 지금 기독교 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아! 이거 문제에요.

주님의 죽음은, '너' 지금 이 세상에서 '너'가 죽으면, 마음 아플 그 죽음 있잖아요?
그거보다 몇 배 몇 천 배 더 마음 아파해야 되는 너의 죽음이고, 잊을 수가 없는 너의 죽음이고, 동시에 나의 죽음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입에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우리 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거라 이겁니다.
왜 이 길을 놔두고 딴 짓을 하느냐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죽음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 대상보다 몇 천 배 더한 너의 죽음이고, 동시에 나의 죽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